



'중앙육교' 역사 속으로 1969년 광주일보의 캠페인으로 광주에 최초로 세워진 동구 공동 '중앙육교'가 노후화·안전상 문제로 52년 만인 지난 8일 새벽 철거되고 있다. 동구는 육교 기둥 4개의 일부를 남겨 추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무더위 한풀 꺾인다

이번주 낮 최고 29~32도...태풍 '루핏' 영향 당분간 흐려

광주와 전남지역에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는 지난달 19일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8일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으며, 제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당분간 흐린 날씨에 예상된 데 따른 분석이다. 이번주는 낮 최고기온이 1~2도 가량 낮아지면서 올 여름 가마솥 더위는 물러났다는 분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와 전남지역 14개 시군에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들 이상 계속될때 내려지는 폭염경보를 폭염주의보(33도가 이를 이상 지속될 때)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기온은 광주 29.6도, 목포 29도, 순천 29.6도, 광양 27.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도는 날씨를 보였다.

우선 폭염경보가 지난달 19일 광주와 담양, 화순 등에 발효된 후 21일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폭염주의보로 완화됐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지역 상공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하강,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내려갔다"면서 "제9호 태풍 '루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9호 태풍 '루핏'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 남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동진 중인 루핏은 일본 규슈에 상륙했다가 9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과 일본 북쪽 사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태풍 루핏은 우리나라 육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태풍 루핏이 빠져나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등 한반도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져 동·서 지역에 상반되는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약화와 서쪽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9~3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이 전망한 낮 최고기온은 9일 30~33도 분포, 10일은 29~32도 수준이며, 12일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당분간 더위가 한 풀 꺾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여름 폭염경보 이상의 큰 더위는 종료된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폭염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사망자 1명 포함, 11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흐린 날씨와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낮 기온은 30도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겠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작은 도서관 2곳도 야간 개방

광주시 남구가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최근 구립 도서관의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도 연장기로 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공립 작은 도서관인 양림동 '역사문화 작은 도서관'과 방림1동 '꽃마을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각각 평일 오후 8시와 9시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양림동 역사문화 작은 도서관은 휴관일인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며, 방림1동 꽃마을

작은 도서관은 평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남구는 앞서 지난 6월부터 구립 도서관인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언제든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3곳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 산단 2곳 환경조사 실시

시, 분기별 모니터링도

목포시가 목포 삼진산업단지과 산정농공단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 6일자 7면)에 따라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삼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의뢰해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 모니터링 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5일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노동권익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등은 '삼진산업단지, 산정농공단지 주변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산단 두곳의 노동자와 인근 거주자들의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환경상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단체들은 지자체와 정

부의 정밀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의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삼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의 먼지(분진)·악취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주변에 분기별 모니터링 조사 중인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지점 추가운영할 방침이다. 또 페인트 날림으로 주변 차량 도색 피해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선소 관련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초속 기준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목시는 지난 4월부터 평균 풍속이 초속 8m 이상일 경우 야외연마, 야외도장 작업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수박 15일부터 맛보세요

광주 북구, 금곡동 공동직판장서 판매

무등산 수박이 최악의 작황을 맞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평년 만큼의 수확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철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이 오는 15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금곡동에 위치한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된다.

일명 '푸엥이'로 불리는 무등산수박은 그동안 수박 개량·개발과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마다 재배 면적과 재배 농가가 줄어 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생산량은 3000통(2015년)→2800통(2016-2017년)→2700통(2018년)→2000통(2019년)→1700통(2020년)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

특히 지난해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으로 5년 전보다 생산량이 40%가 넘게 급감했다. 다행히 올해는 예년 수준인 2000~2500여통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2배~3배가량 크고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특효가 있으며 해독작용이 뛰어나 명품 수박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북구는 매년 무등산수박육성사업을 통해 생산가장려금,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직판장을 통한 선별출하, 품질인증, 상품 리플렛 등 엄격한 관리로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무등산수박 구매는 공동직판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며 8kg 2만원 16kg 10만원 20kg는 18만원에 판매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무등산수박이 전국적인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회 '광주' 노래 경연대회 열린다

동구, 9월1일부터 접수

전일빌딩245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 '제1회 광주노래 경연대회'가 열린다.

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광주노래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또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음악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해 광주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노래를 발굴하려는 의지도 담겨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광주'를 주제로 한 창작곡과 기성곡의 리메이크 곡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메일로 (jicc4245@naver.com) 접수가능하며, 예선은 9월 28일 오후 2시 '245생활문화방송' 유튜브로 볼 수 있다. 본선은 2021년 10월에 열리는 총장축제 기간 주 무대에서 열린다.

참가팀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상금 300만원) 1팀,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1팀, 우수상(상금 100만원) 1팀, 장려상(상금 50만원) 2팀을 선발한다. 입상곡은 다양한 편곡을 거친 음원으로 광주시민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은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년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금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